

시멘트 가격 인상... 지역 건설업계 비상

동양, 내달부터... 다른 업체도 잇따를 듯 레미콘 가격도 덩달아 올라 업계 촉각

시멘트 업체들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멘트 가격을 10% 가량 인상하기로 해 레미콘 업계 및 장기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다음달 7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지역레미콘업체도 아직 한국양회 공업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았지만 2월경 시멘트 제조사들이 순차적으로 t당 6000~7000원 가량을 올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t당 6000원이 인상된다면 레미콘 가격도 20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지역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연초에는 자갈이나 모래 등 레미콘 원자재가 가격이 오른다"며 "여기에 시멘트 가격 인상을까지 더해지면 레미콘 가격도 10% 가까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시멘트 가격이 오르자 레미콘 업체도 발맞춰 9% 정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실제 가격에는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영세 레미콘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납품이 연동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무조건 레미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이미 오르기 전 가격에 레미콘 계약을

▲ 코스피지수 1964.43 (+8.47)	▼ 코스닥지수 502.80 (-2.55)	▲ 금리 (국고채 3년) 2.78% (+0.03)	▲ 원·달러 환율 1085.50원(+3.00)
----------------------------	---------------------------	--------------------------------	------------------------------

농지은행, 지역농업인에 1200억 지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경영희생지원 등 사용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가 2013년 농지은행 사업비 1202억원을 확보해 광주·전남 지역 농업인에게 지원을 펼친다.

전남본부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총 1202억원을 투입해 ▲영농규모보조 과원규모화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비축(농지매매에 어려움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 ▲경영이양지원(65~70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 ▲농지연금(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에 매월 지급받는 연금)사업 등을 시행해 전남 농업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퇴 및 이농 희망 농가가 원활하게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줄었다

화학·기계장비 등은 증가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2년 12월 중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달보다 4.8%, 전월보다 4.5% 각각 줄었다.

업종별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77.3%), 기계장비(2.4%), 금속가공(5.7%)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13.2%)를 비롯해 전기장비(-31.8%), 고무 및 플라스틱(-11.7%) 등에서 감소했기 때문이다.

12월 광주의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



형형색색 주방용품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주방용품 판매장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앞두고 화려한 색상의 주방용품을 선보여 여성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난해 항만 물동량 13억t... 사상 최대

광양항 7.1% 늘어... 섬유류·무연탄 물량 증가

지난해 전국 무역항의 물동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연말에는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13억3000만t으로 2011년 13억1000만에서 1.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간 물동량으로 역대 최고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0년 11.8%, 2011년 8.9%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물동량은 1억 1000만t으로 전년 12월(1억1800만)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 수출 감소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는 22억5000만달러로 같은 해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무역항 중에서는 광양항(7.1%), 부산항(5.9%), 평택·당진항(5.1%)이 섬유류, 기계류, 무연탄 등의 수출입 물량 증가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항과 포항항은 모래, 철재 등 연안 화물과 수출입 부진의 여파로 2011년보다 각각 2.9%, 6.9% 감소했다.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2161만1000TEU(20피트 길이 컨테

지역 기업 자금사정 여전히 악화

기업자금사정 BSI 79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올 1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기업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중업원 5명 이상인 법인사업체 550개를 대상으로 한 '2013년 1월 기업자금사정 조사' 결과 1월 광주·전남지역 기업자금사정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9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이 79로 8포인트 하락, 비제조업은 79로 2포인트 상승을 각각 기록했다.

2월 기업자금사정 전망BSI도 75로 전달보다 3포인트 내려갔다.

1월 자금수요BSI는 107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자금조달BSI는 87로 3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産 삼성전자 냉장고 美 UL 인증 받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제조된 프렌치도어 냉장고가 미국 안전규격 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지속가능제품인증'(SPC)을 받았다.

인증 받은 제품은 프렌치 도어 6개 모델로 재질과 사용단계 에너지, 제조·운영, 제품성능, 폐기관리, 혁신기술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UL로부터 냉장고에 대해 SPC를 받은 것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에 이어 삼성전자가 두 번째다.

UL은 시판 제품 중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고자 제품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자원활용, 제품이 사용되는 유



물질, 제품의 혁신기술은 물론 제조 공정까지 다각도로 친환경성을 분석·평가해 SPC를 부여한다. 삼성전자는 제품뿐 아니라 포장에서도 친환경 기술도 주목 받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장성군 Jangseong

정경과 체유의 숲

장성 축령산 편백림

푸른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장성 치유의 숲! 축령산 편백 숲길로 초대합니다!

편백 염색 침구류

편백 공예 옷장

편백 베개

편백나무 침대

편백 로션, 샴푸, 스킨

편백향로세트

장성편백림 JANGSEONG PYEONBAEKILM

장성편백향토사업단
515-8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명천로 200
TEL 061)390-7398 FAX 061)390-7584